



주 제:	“성가정”	“예수, 마리아, 요셉 성가정 대축일”	2008년 12월 28일
복음 묵상:	[루카 2,22-40]	[집회 3,2-6.12-14]	[골로새 3,12-21]

우리들은 예수님, 성모님, 요셉 성인이 꾸민 가정을 ‘성가정’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우리 가정도 성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가정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성가정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즉, 우리들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성가정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런 가정은 성가정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. 문제가 전혀 없던 가정일까요?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.

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어머니, 그리고 양아버지, 또한 사형수로서 어머니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아들. 이렇게 구성된 가정을 보면서 ‘와~~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구나. 우리도 이런 가정을 본받아야 해.’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?

아닙니다.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. 즉, 예수님, 성모님, 요셉 성인의 가정을 통해 성가정의 기준은 고통이 있고 없고, 또 문제가 있고 없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고, 서로 힘을 모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

성가정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, 하느님의 기준으로 행복한 가정을 말합니다.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일길 기도합니다.
(빠다킹 신부님 강론 중에서)

1.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

- 오랫동안 성탄을 위해 준비하신 지휘자, 반주자 및 모든 단원들의 수고에 주님의 축복이 듬뿍 내리시길 기도합니다.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니 감사하며 넘치는 은혜를 받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- 이은순 아녜스 자매님. LA 여행중에 있습니다. 모든 것이 기쁨안에 마무리 되시길 빕니다..
-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; 2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.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..

공지 사항:

1. **요셉회 송년파티**에 성심 성가대가 초대받았습니다.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
장소: 본당. 일 시: 12월 27일(토) 오후 6시:00.
2. **성가대 송년회**; 지난 한해에 수고 하신 모든 단원들과 가족이 함께 참석하시어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장소: 한성 갈비집; El Camino Real, Santa Clara, CA
언제: 12월 28일(일) 교중미사후 12:00
3. **본당 봉사자 파티**; 모든 봉사자가 초대된 본당 봉사자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.
장소: 본당 12월 28일(일) 오후 6:00.
4. **문성호(요셉)과 최남숙(멜라니아) 부부님**이 모든 성가대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.
12월 31일(수) 낮 12시에 식사를 준비하고 초대하오니, 시간이 허락하시는 모든 대원들은 초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.
주소: 1075 Lighthouse Ave. #229, Pacific Grove, CA 93
5. **화답송**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.
<http://www.sjkoreancatholic.org/node/9592>
6. 1월 1일(목)은 “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”이며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.

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. 그것은 "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" 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.

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.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.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 주셨던 것이다.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 갔더니 마침 예수님의 보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.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.

"주여,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
이 좋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
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.
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.
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
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."



♡ 기도...♡



♡ 기 도

주님,
어머니 마리아의 아름다운 영혼을
저희도 닮아 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.

어머니처럼 목숨을 내놓지는 못해도
작은 희생을 봉헌할 줄 알게 하시고,
어머니처럼 평생을 순결하지는 못해도
쉽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.

주님,
어머니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
저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.

아멘.

오늘의 말씀 사탕: "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. (1 히브 10,36)."

**새해에는 바라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
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.**

김 지만 토마스 & 김 화선 모니카